

## II G20 서울정상회의 개요

-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G20 재무장관 회의가 G20 정상회의로 격상되었고, 동 정상회의는 2009년 8월 피츠버그 회의 이후 정례화 되어 최상급 포럼으로 발전
- 선진국과 세계경제에서 비중이 커진 신흥개도국과의 금융 협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, G8\*에 11개 신흥국\*\*과 EU가 포함되어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출범
  - \* 1974년 오일쇼크 이후 미국, 영국, 일본, 독일, 프랑스 등 5개국으로 구성된 G5 경제협의체는 1975년에 이탈리아, 1976년에 캐나다, 그리고 1997년에 러시아가 가입하여 G8 체제로 확대
  - \*\* 11개국은 한국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아르헨티나, 브라질, 멕시코, 터키, 호주, 남아프리카공화국, 사우디아라비아임.
-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G20 재무장관회의를 G20 정상회의로 격상
-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개최된 최초의 사례이며,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됨.
  - G20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워싱턴, 런던, 피츠버그, 토론토 등 선진국에서만 열렸음.
  - 특히 개도국 지원 및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과 같은 ‘Korea Initiative’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 및 의제 설정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

■ 한편,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제는 기존의제와 신규의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의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둠.

○ 기존의제는 지난 4차례의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안들에 대한 이행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전체 의제의 60~70%를 차지

- G20 Framework : 세계경제의 중기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 논의로서, G20의 정책공조 방안 및 각국의 정책약속을 종합한 ‘서울액션플랜’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둠.

- 국제금융기구 개혁 : 선진국 위주로 되어 있는 IMF,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여 정통성을 제고하자는 논의로서, IMF의 국가 간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을 달성

- 금융규제 개혁 :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금융규제의 국제적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선 논의로서,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 강화 및 유동성 규제 도입, 거시건전성 규제, 신흥국의 규제개혁 과제 등에 합의

○ 신규의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경제개발 등이 이에 해당

- 개발 : 금융위기 이후 G20의 정통성 제고를 위해 비회원국의 주요 관심사인 개발 의제에 대한 논의로서, 개도국의 빈곤 해소와 개발격차 해소의 원인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‘서울개발컨센서스’를 도출

- 글로벌 금융안전망 :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대응 및 위기전염 방지를 위한 논의로서, IMF의 대출제도 개선에 합의

- 비즈니스 서밋 : G20 정상회의 준비과정에 민간부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서밋 정례화에 합의